

초고령사회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 - 연령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in a Superaged Society
: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in Japan

일본 弘前大學 교육학부
준 교수 이수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초고령사회, 일본, 연령계층,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노후 생활 인식

〈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survey data from Japan, I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by age group.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are from the "Survey on Life Security, 2019" conducted by the Japan Life Insurance Cultural Center, which surveyed men and women aged 18 to 6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ctatio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er than expectations about other forms of social security in all age groups. Second, when it comes to expectations for public pensions, both men and women have the highest average scores in their 60s. Third, the age group with the lowest average score for public health insurance, public pension, public care insurance, and survivors' pension was found to be those in their 40s. In addition, men in their 20s had a higher average score

*2023년 생활과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구두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http://orcid.org/0000-0001-6104-6967>

on their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Fourth,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expectations on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wa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for gender and age groups, but overall, it was found that public health insurance expectations were an important factor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Key words: Superaged society, Japan, Age group,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I. 서론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 연령계층을 고려하여 고령화를 들여다보면 세대 간 노동력공급의 불균형, 의료비 및 복지비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문화일보 조사(2023)에 따르면 20-30대가 꼽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세대의 고령 인구 부담 등 세대 갈등 증대’(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경제 불안’(38.5%)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었다(문화일보, 2023).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세대갈등의 양상이 표출되었고 더 나아가 정년연장 등의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논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23).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인구구조를 보면, 2021년 9월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40년이 되면 고령화율은 35.3%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內閣府, 2022; 総務省統計局, 2022). 세대 간 불평등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 문제, 경제적 격차, 취업문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구구조는 현역세대에 의한 고령세대의 부양부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1950년에는 현역세대(15-64세) 12.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던 되었는데, 2015년에는 현역세대 2.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65년에는 현역세대 1.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內閣府, 2022). 경제적 상황의 격차도 세대 간 갈등의 요소이다. 30년간의 통계자료에서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1947년-1949년 무렵에 태어난 세대)의 자녀세대(1971-1974년생)의 자산형성이 늦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세대의 개인 자산 총액이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의 자산에 있어서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자산액이 줄어드는 세대 간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一般社団法人 投資信託協会, 2023). 총무성 가계조사(2015년)에 의하면 가구주가 70세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2,389만엔, 가구주가 60세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2,402만엔, 가구주가 50대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1,751만엔, 가구주가 40대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1,024만엔이었다. 한편, 가구주가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저축액은 608만엔 정도였는데, 저축액보다 부채액이 더 많은 것도 이들 가구의 특징이었다(総務省統計局, 2015). 다음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문제는 취업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고용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는 점이다. 고령층의 고용확보 조치와 청년층의 고용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인데 고령층의 고용확보 조치는 청년층 고용을 억제한다고 하는 주장과 고령층의 고용확보 조치는 청년층 고용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金明中, 2020).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의 관계가 대체관계일 때와 보완관계일 때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太田, 2019). 일본의 고용안정법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55세가 정년연령이었으나 1998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 2006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재개정되면서 65세까지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성립되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金明中, 2020; 丸山, 2023). 이러한 조치가 고령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2004년 이후 18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고령자의 취업률은 25.1%였고, 65-69세의 취업률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50.3%가 되었고, 70세 이상의 취업률은 5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에 18.1%로 나타났다(総務省, 2022). 한편, 청년층의 취업률을 살펴보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매년 3월 대학 등 졸업자의 취업상황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22년 3월 대학 등 졸업자 중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은 95.8%,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등을 포함하면 96.1%, 2023년 3월 졸업자 중 취업희

망자의 취업률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22; 読売新聞, 2023).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 청년층의 대졸자 취업률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만 볼 때는 고령층의 취업과 청년층의 취업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후퇴하면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서 대체성이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金明中, 2020).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은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 문제, 경제적 격차, 취업문제와 더불어 미래생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인식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의견은 연령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소현(2018)의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는데 연령대가 젊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상태가 기혼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의견 중, 60대는 20대에 비해서 가입자의 부담을 강화하지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혜경 외(2015)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이 본인 및 현재 노인 세대, 젊은 세대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부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부담액의 증가에 대한 의견에서 연령계층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에서 사회보장의 급부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로 인한 부담액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는 사회보장 급부수준을 내리더라도 부담액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부담액의 증가에 긍정하는 의견은 연령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한편, 현역세대의 부담액 증가에 긍정하는 의견은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사회보장의 혜택에 불평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일본경제 비즈니스(2017)에 따르면 세대별 노후에의 불안감에 있어서 20대-40대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인구 감소 시대인 지금에서는 유효성이 없고, 자신이 연금수급시기가 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가장 두드러졌다. 60-70대는 자신들이 사회에 공헌 해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日経ビジネス, 2017).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3; KBS 뉴스, 2022).

2.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와 노후 생활 인식과의 관계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노후의 생활의 준비는 일단 본인이 하지만, 전부 불가능할 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회보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2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노후의 생활은 자신이 준비해야하므로, 젊을 때부터 그 준비를 한다. 사회보장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22.9%)이 많은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노후 생활의 준비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사회보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을 꼽은 비율이 50%를 넘었고, 고령자 의료 및 간호, 의료보험, 의료공제체제 등의 응답이 각각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는 의료보험, 30대는 자녀양육지원, 40대는 의료보험과 자녀양육지원, 50대 이후는 연금과 고령자 의료 및 간호, 의료보험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노후의 소득보장(연금), 고령자 의료 및 간호, 의료보험 등이 상위3위를 차지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을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분야로 꼽았고, 30대는 자녀양육지원과 노후 소득보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생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담감이 있다는 응답이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어려울 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응답은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사회보험료의 부담감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연, 유창훈과 박은철(201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 고령자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및 국가의 노후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의 생활보장보다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장 측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생

활보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령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기대감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는 노후 생활 인식 및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수급과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와는 일관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 권창혁과 이은영(2012)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권창혁과 김지현(2020)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은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유지연(2016)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액이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성공적 노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등의 다른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금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중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은 중·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개인연금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환·이동현·안장혁, 2019; 박명아 외 2017).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공익재단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다. 본 조사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보장 의식과 보장준비의 실태를 시계열로 파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연혁으로는 1987년부터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 지점은 전국의 400지점,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방법이다. 총 4,014명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계층별 사회보장 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공적 건강보험	“자신의 의료비는 앞으로 공적인 건강보험 만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
사회 보장 기대 인식	공적연금 “자신의 노후의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에서 많은 부분 충당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
	공적개호(간병)보험 “노후에 노쇠, 질병 및 치매 등으로 혼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드는 비용은 공적개호(간병)보험에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
	유족연금 “만일,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 등의 공적인 보장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A. 사적인 생활보장의 준비는 현재의 생활을 절약해서라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B. 사적인 생활보장의 준비는 현재의 생활을 절약하면서까지 스스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A에 가깝다’와 ‘선택하자면 A에 가깝다’를 합해서 ‘A의견에 가깝다’=0, ‘B에 가깝다’와 ‘선택하자면 B에 가깝다’를 합해서 ‘B의견에 가깝다’=1로 구분
노후 생활보장 주체	“A. 자조노력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보다 높은 보험료 및 세금을 내더라도 공적연금을 받고 싶다. B. 공적연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보험료 및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자조노력으로 준비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서 ‘A에 가깝다’와 ‘선택하자면 A에 가깝다’를 합해서 ‘A의견에 가깝다’=0, ‘B에 가깝다’와 ‘선택하자면 B에 가깝다’를 합해서 ‘B의견에 가깝다’=1로 구분
생활설계 유무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를 세우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0, ‘하고 있다’=1로 구분
생활 설계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노후 이전의 생활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생활이 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노후는 이전의 생활보다 감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하게 될 것이다)’=1, ‘노후는 이전의 생활과 거의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할 것이다)’=2, ‘노후는 이전의 생활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하게 될 것이다)’=3으로 구분
노후 생활 인식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다’(1점)~‘불안감이 매우 크다’(4점)로 측정되었고, ‘불안감이 매우 크다’(1점)~‘불안감이 없다’(4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44.0%, 여성이 56.0%였다. 연령계층을 보면 20대가 12.1%, 30대가 16.9%, 40대가 23.6%, 50대가 22.4%, 60대가 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고졸 이하가 46.8%, 단

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가 24.4%, 대졸 이상이 28.7%의 분포를 보였다. 본인 연간소득은 수입 없음이 13.8%, 100만엔 미만 16.1%, 100~200만엔 미만 14.0%, 200~300만엔 미만이 11.6%, 300~500만엔 미만이 16.2%, 500만엔 이상은 15.6%로 나타났다. 소득 변수의 특성상 무응답 비율이 12.7% 있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69.6%, 무배우가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 M(SD)
성별	남성 1,765(44.0)
	여성 2,249(56.0)
연령계층	20대 484(12.1)
	30대 679(16.9)
	40대 948(23.6)
	50대 900(22.4)
	60대 1,003(25.0)
학력	고졸 이하 1,859(46.8)
	단기대학/전문학교 970(24.4)
	대졸 이상 1,141(28.7)
	수입 없음 554(13.8)
본인 연간소득	100만엔 미만 647(16.1)
	100~200만엔 미만 561(14.0)
	200~300만엔 미만 465(11.6)
	300~500만엔 미만 650(16.2)
	500만엔 이상 627(15.6)
	무응답 510(12.7)
배우자 유무	유배우 2,788(69.6)
	무배우 1,220(30.4)

주: 연령계층에서 20대에는 18~19세를 포함함. 본인 연간소득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숫자임.

2.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표 3〉은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을 평균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신의 의료비는 앞으로도 건강보험만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을 보면, 20대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 2.46점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후의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에서 많은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을 보면, 60대의 평균점이 1.9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평균점이 1.70점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노쇠 혹은 치매 등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드는 비용은 공적개호(간병)보험에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대에서 1.86점으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대의 평균점이 1.6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20대, 50대, 60대가 30대 및 40대보다 평균점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 중에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적 건강보험에 관해서 남성은 20대의 평균점이 가장 높고, 60대의 평균점이 가장 낮아서 연령계층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20대의 평균점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 이외의 다른 연령계층의 평균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개호보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남성에서는 2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

아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대를 종합해 보면, 공적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일정정도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충당가능하리라는 기대수준이 낮은 것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중 가장 기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것은 공적 개호보험이었다. 또한, 공적 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였는데, 이는 성별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령계층별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 보장 주체에 관한 견해

〈표 4〉는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 보장 주체에 관한 견해에 연령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A의견에 가깝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40대에서 66.7%, 50대에서 68.9%, 60대에서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대해서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와 60대에서 ‘B의견에 가깝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60.1%, 60.6%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계층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이상에서 ‘A의견에 가깝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특히, 5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표 3〉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전체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63	2.46	2.33	2.35	2.31	14.18***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83	1.76	1.70	1.83	1.97	14.55***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86	1.70	1.61	1.68	1.76	9.71***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2.05	1.86	1.88	2.01	2.01	7.03***
남성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68	2.50	2.30	2.40	2.29	9.83***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88	1.84	1.75	1.95	2.03	6.86***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95	1.71	1.65	1.75	1.81	6.63***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2.11	1.91	1.88	2.05	1.92	4.12**
여성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58	2.44	2.35	2.32	2.33	5.07***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77	1.70	1.66	1.73	1.92	9.21***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76	1.68	1.58	1.63	1.73	3.78**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1.98	1.82	1.89	1.99	2.08	6.10***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연령계층별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제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노후 생활보장 주제		
		A의견: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 B의견: 사적 생활보장 준비 불필요			A의견: 공적연금 B의견: 자조노력		
		A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가깝다	χ^2	A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가깝다	χ^2
전체	20대	239(54.8)	197(45.2)	49.931***	188(43.1)	248(56.9)	5.130
	30대	362(55.8)	287(44.2)		256(39.9)	386(60.1)	
	40대	612(66.7)	306(33.3)		377(42.7)	507(57.4)	
	50대	589(68.9)	266(31.1)		370(43.8)	474(56.2)	
	60대	632(66.8)	314(33.2)		361(39.4)	555(60.6)	
남성	20대	116(51.3)	110(48.7)	29.764***	89(39.7)	135(60.3)	5.373
	30대	144(51.6)	135(48.4)		101(36.1)	179(63.9)	
	40대	268(65.1)	144(35.0)		175(43.8)	225(56.3)	
	50대	248(67.4)	120(32.6)		160(43.6)	207(56.4)	
	60대	246(63.9)	139(36.1)		151(40.1)	226(60.0)	
여성	20대	123(58.6)	87(41.4)	19.817**	99(46.7)	113(53.3)	4.825
	30대	218(58.9)	152(41.1)		155(42.8)	207(57.2)	
	40대	344(68.0)	162(32.0)		202(41.7)	282(58.3)	
	50대	341(70.0)	146(30.0)		210(44.0)	267(56.0)	
	60대	386(68.8)	175(31.2)		210(39.0)	329(61.0)	

*** $p < .001$, ** $p < .01$, * $p < .05$

으로 나타났다. 한편, ‘A의견에 가깝다’는 40대 이상의 응답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노후 생활보장 주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연령계층에서 ‘B의견에 가깝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은 30대에서, 여성은 60대에서 ‘B의견에 가깝다’는 응답비율은 높은 특징이 있었다.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제에 관해서는 공적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생활을 고려할 때, 20대 및 30대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생활설계의 유무

〈표 5〉는 생활설계 유무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로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대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노후

에는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특히, 40대 및 5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약 30%정도(각각 26.6%, 28.3%)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에서 노후에는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80.2%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비율도 19.3%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0대 및 50대에서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20대 및 60대는 노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각각 25.1%, 26.4%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

〈표 6〉은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에 대한 평균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점수가 클수록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인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점을 보면, 20대 및 60대의 평균점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고, 40대 남성의 평균점이 가장 낮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여성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의

〈표 5〉 연령계층별 생활설계 유무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χ^2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χ^2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	이전과 동일한 생활	이전보다 윤택한 생활	
전체	20대	106(25.2)	314(74.8)	44.725***	271(70.0)	103(26.6)	13(3.4)	46.690***
	30대	252(40.4)	372(59.6)		465(75.9)	134(21.9)	14(2.3)	
	40대	361(40.6)	529(59.4)		715(80.6)	158(17.8)	14(1.6)	
	50대	358(42.5)	484(57.5)		685(79.3)	164(19.0)	15(1.7)	
	60대	408(43.3)	535(56.7)		672(70.0)	272(28.3)	16(1.7)	
남성	20대	54(25.8)	155(74.2)	24.067***	132(68.8)	54(28.1)	6(3.1)	28.337***
	30대	123(45.4)	148(54.6)		188(72.0)	70(26.8)	3(1.2)	
	40대	174(43.9)	222(56.1)		316(80.2)	76(19.3)	2(0.5)	
	50대	154(42.4)	209(57.6)		289(77.3)	77(20.6)	8(2.1)	
	60대	151(39.3)	233(60.7)		261(66.8)	122(31.2)	8(2.1)	
여성	20대	52(24.6)	159(75.4)	33.038***	139(71.3)	49(25.1)	7(3.6)	28.628***
	30대	129(36.5)	224(63.5)		277(78.7)	64(18.2)	11(3.1)	
	40대	187(37.9)	307(62.2)		399(80.9)	82(16.6)	12(2.4)	
	50대	204(42.6)	275(57.4)		396(80.8)	87(17.8)	7(1.4)	
	60대	257(46.0)	302(54.0)		411(72.2)	150(26.4)	8(1.4)	

*** $p < .001$

〈표 6〉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전체	2.60	2.38	2.31	2.34	2.60	17.98***
남성	2.74	2.55	2.37	2.40	2.62	8.36***
여성	2.45	2.24	2.25	2.30	2.58	12.50***

*** $p < .001$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계층에서 남성 보다는 여성이 노후 생활 인식 평균점이 낮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령계층별 차이

〈표 7〉와 〈표 8〉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표 7〉은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 〈표 8〉은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보장 변수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노후 생활보장 주체, 생활설계 유무, 노후생활 전망을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학력, 연간 수입, 배우자 유무를 설정하였다.

〈표 7〉을 참고로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은 사적으로 생활 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에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경우에 통제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을 보면 노후 생활을 공적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에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배우자일수록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0대 남성은 공적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 전망에 대해서 노후에 지금과 동일한 생활일 것으로 전망할 때에 비해서, 검소한

〈표 7〉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성)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학력	고졸 이하	.036	.181	.019	.120	.141	.120	.109 [†]	-.219	-.127	-.084	.123	-.045	.113	.019	.036	.113	-.045	.123	-.084	.123	-.045	.113	.019						
	단기/전문대졸	-.125	.254	-.044	-.128	.196	-.049	-.097	.138	-.045	-.090	.169	-.035	.199	.066	.221	.199	-.035	.169	-.090	.169	-.035	.199	.066						
	ref:대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200만엔 미만	-.062	.253	-.030	-.582	.703	-.117	.723	.416 [†]	.220	.280	.360	.074	.236	.084	.194	.236	.074	.280	.360	.074	.194	.236	.084						
	500만엔 미만	-.052	.255	-.028	-.140	.633	-.077	.455	.386	.257	-.270	.312	-.138	.221 [*]	.232	.441	.221 [*]	-.138	-.270	.312	-.138	.441	.221 [*]	.232						
연간 수입	500만엔 이상	.169	.412	.047	.123	.641	.067	.318	.390	.187	.144	.316	.078	.241 ^{**}	.290	.657	.241 ^{**}	.078	.144	.316	.078	.657	.241 ^{**}	.290						
	ref:수입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유배우자	.107	.245	.040	-.364	.150 [*]	-.181	.345	.137 [*]	.175	-.090	.135	-.044	.129	.085	.195	.129	-.044	.135	-.090	.135	-.044	.129	.085						
	ref:무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공적건강보험	.297	.185	.155	.180	.133	.098	.197	.110 [†]	.116	-.009	.123	-.005	.117	.115	.220	.117	-.005	.123	-.009	.123	-.005	.117	.115						
사회보장 기대인식	공적연금	.352	.233	.163	.077	.202	.031	.187	.171	.076	.310	.182 [†]	.137	.137	.075	.153	.137	.137	.310	.182 [†]	.137	.153	.137	.075						
	공적개호보험	-.058	.236	-.027	-.033	.255	-.011	.073	.213	.022	.128	.194	.049	.166	-.042	-.107	.166	.049	.128	.194	.049	-.107	.166	-.042						
	유족연금	-.136	.222	-.070	.268	.168	.124	.126	.130	.062	.019	.144	.010	.139	.096	.206	.139	.010	.019	.144	.010	.206	.139	.096						
	사적 생활 보장	.365	.165 [*]	.197	.017	.127	.009	.190	.106	.106	.088	.119	.045	.109	.089	.179	.109	.045	.088	.119	.045	.179	.109	.089						
	ref: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노후 생활 보장	자조노력	-.100	.169	-.052	.369	.132 ^{**}	.196	.065	.100	.038	.296	.110	.164	.129	.129	.251	.111 [*]	.164	.296	.110	.164	.251	.111 [*]	.129						
	ref:공적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실계	-.135	.170	-.069	.027	.131	.015	.155	.103	.091	.143	.115	.079	.113	.129	.247	.113	.079	.143	.115	.079	.247	.113	.129						
	ref: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김소한 생활	-.626	.182 ^{**}	-.318	-.295	.141 [*]	-.149	-.340	.129 ^{**}	-.158	-.432	.143 ^{**}	-.198	-.357	-.357	-.738	.119 ^{**}	-.198	-.432	.143 ^{**}	-.198	-.738	.119 ^{**}	-.357						
노후 생활 전망	운택한 생활	.368	.550	.060	.103	.527	.014	-.183	.851 [*]	-.129	.222	.406	.035	.373	-.030	-.201	.373	.035	.222	.406	.035	-.201	.373	-.030						
	ref: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상수	2.158	.526 ^{**}	—	2.050	.694 ^{**}	—	1.175	.513 ^{**}	—	2.003	.440 ^{**}	—	.350 ^{**}	—	1.573	.350 ^{**}	—	2.003	.440 ^{**}	—	1.573	.350 ^{**}	—						
	Adj R ²	.131	.105	.091	.162	.309	.309	.162	.309	.309	.162	.309	.309	.162	.309	.309	.162	.309	.309	.162	.309	.309	.162	.309						
	F값	2.29 ^{**}	2.57 ^{**}	2.87 ^{**}	4.13 ^{**}	8.33 ^{**}	8.33 ^{**}	4.13 ^{**}	2.87 ^{**}	4.13 ^{**}	8.33 ^{**}	8.33 ^{**}	4.13 ^{**}	2.87 ^{**}	4.13 ^{**}	8.33 ^{**}	8.33 ^{**}	4.13 ^{**}	2.87 ^{**}	4.13 ^{**}	8.33 ^{**}	8.33 ^{**}	4.13 ^{**}	2.87 ^{**}						
N	129	202	282	244	247	247	244	282	244	247	247	244	282	247	247	244	282	244	247	247	244	282	247	247						

** p < .001, * p < .05, † p < .10

〈표 8〉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성)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학력	고졸 이하	.083	.217	.045	-.038	.148	-.019	-.143	.119	-.077	-.171	.142	-.100	.149	-.025															
	단기/전문대졸	.213	.241	.099	.093	.140	.047	.100	.115	-.054	-.181	.145	-.103	.158	-.003															
	ref:대졸 이상	—	—	—	—	—	—	—	—	—	—	—	—	—	—															
	200만엔 미만	-.118	.231	-.063	-.276	.145 [†]	-.143	-.275	.124 [†]	-.155	.167	.111	.098	.112	.039															
	500만엔 미만	-.402	.243	-.214	-.200	.170	-.097	-.177	.144	-.086	.104	.135	.051	.145	.021															
연간 수입	500만엔 이상	-.052	.731	-.007	.013	.278	.003	.029	.208	.008	.124	.212	.033	.290	-.034															
	ref:수입 없음	—	—	—	—	—	—	—	—	—	—	—	—	—	—															
	유배우자	-.365	.203 [†]	-.177	.218	.153	.097	.214	.119 [†]	.094	.386	.124 ^{**}	.166	.400	.171															
	ref:무배우자	—	—	—	—	—	—	—	—	—	—	—	—	—	—															
	공적건강보험	.041	.181	.022	.038	.120	.020	.210	.097 [†]	.117	.187	.093 [†]	.109	.180	.097															
사회보장 기대인식	공적연금	.140	.318	.053	.131	.211	.044	.512	.214 [†]	.155	.122	.155	.050	.144	.069															
	공적개호보험	-.190	.308	-.080	.240	.219	.079	-.275	.234	-.076	.286	.174	.104	.138	.014															
	유족연금	.373	.244	.172	-.012	.175	-.005	.152	.124	.068	.136	.106	.069	.323	.098 ^{**}															
	사적 생활 보장	-.089	.183	-.047	.125	.117	.065	.071	.095	.037	.002	.096	.001	.115	.093	.058														
	ref:있음	—	—	—	—	—	—	—	—	—	—	—	—	—	—															
노후 생활 보장 변수	자조노력	.036	.176	.020	.170	.123	.090	.125	.090	.070	.195	.087 [†]	.113	.123	.066															
	ref:공적연금	—	—	—	—	—	—	—	—	—	—	—	—	—	—															
	생활실계	.015	.214	.007	.214	.124 [†]	.109	.132	.097	.072	.302	.089 ^{**}	.176	.247	.135															
	ref:없다	—	—	—	—	—	—	—	—	—	—	—	—	—	—															
	김소한 생활	-.336	.193 [†]	-.167	-.384	.157 [†]	-.162	-.511	.123 ^{***}	-.220	-.404	.116 ^{**}	-.183	-.395	.102 ^{***}	-.188														
노후 생활 전망	운택한 생활	1.136	.699	.158	-.371	.389	-.062	.332	.337	.052	.375	.340	.057	.366	-.031															
	ref:동일	—	—	—	—	—	—	—	—	—	—	—	—	—	—															
	상수	2.13	.455 ^{***}	—	1.752	.408 ^{***}	—	1.774	.355 ^{***}	—	1.226	.291 ^{***}	—	1.350	.294															
	Adj R ²	.023			.059			.145			.170			.1610																
	F값	1.20			2.14 ^{**}			5.01 ^{***}			5.69 ^{***}			5.96 ^{***}																
N	122			271			355			346			389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거나 윤택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보다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는 200만엔 이하의 수입일 경우에, 무배우 보다는 유배우의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성의 경우에, 공적연금으로 노후의 일상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감소한 생활일 것으로 전망할수록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은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노후 생활을 공적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일 때,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의 경우, 통제변수 중 연간수입이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연간 200만엔 미만, 연간 500만엔 미만의 경우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해서 보면, 모든 연령계층의 분석모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공통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표 8>을 참고로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여성은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배우자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여성은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감소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연소득이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이하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공적연금에 대해서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감소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연소득과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미만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배우자의 경우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에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 보장을 공적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일 때,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배우자일 경우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유족연금에 기대할수록,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배우자일 경우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해서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여성의 분석모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공통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별분석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배우자일 경우에 3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4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40대, 50대, 60대의 유배우 일 때 노후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대는 유배우일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만, 20대의 경우,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30대 및 40대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미만에서 노후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연령계층별 특성을 보면, 20대 남성이 현재의 생활을 절약하면서까지 사적인 생활보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었다. 여성은 40대, 50대, 60대에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설계의 유무가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계층은 남성은 60대 뿐인 것에 반해, 여성은 30대, 50대, 60대인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생활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에 있어서 세대 간 불평등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혜경 외(2015)의 연구에서 모든 연령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적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이 본인 및 현재 노인 세대, 젊은 세대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식(양혜경 외, 2015)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하쿠호도 WEB 매거진(2019)에 따르면 고령층은 인생 100세 시대를 반드시 희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등을 크게 느끼고 있고 장수한다는 것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博報堂WEBマガジン, 2019). 공적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60대는 사적 생활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공적연금 보다는 자조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즉, 60대는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 사적 생활보장 준비 등,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중·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개인연금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김대환 외, 2019; 박명아 외 2017)는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과는 별개로 사적 생활보장도 동시에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고, 40대 남성의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여성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의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분석에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후 생활 인식 평균점이 낮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 비즈니스(2017)에 따르면 세대별 노후에의 불안감에 차이가 있는데, 20-40대에서는 자신이 연금수급시기가 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큰 반면, 60-70대는 자신들의 사회에 공헌 해 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日経ビジネス

스, 2017).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3; KBS 뉴스, 2022). 청년층의 문제에 주목할 때 20-30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래생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배우일 경우에 30대 남성은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40대, 50대, 60대의 유배우일 때 노후를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대는 유배우일 경우에 노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를 보면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쿠호도 WEB 매거진(2019)에 따르면, 청년층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博報堂WEBマガジン, 2019). 위의 결과는 이러한 20대 및 30대의 미래생활의 불확실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남성의 경우, 40대 남성은 공적건강보험의 기대수준, 50대 남성은 공적연금의 기대수준, 60대 남성은 공적 건강보험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4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의 기대수준, 50대 여성은 공적 건강보험에 기대수준, 6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유족연금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서 앞으로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 고령자의 의료 및 개호, 의료보험 등이 상위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도 공적건강보험의 충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논의가 필요가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청년층도 아니고 중고령층도 아닌 40대의 생활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20대는 30대 및 40대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비교적 높고, 노후 생활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인식 등을

포함해 미래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이 40대인 점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연령계층별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 山崎(2016)는 사회보장 제도 특히 연금 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기능함으로써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모가 노후에 공적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녀는 그 만큼 부모 부양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인가구 및 한자녀 세대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부양을 형제들끼리 나눌 수 있었던 다자녀 세대에 비해서 한 자녀 세대는 오롯이 한사람의 자녀가 부모부양의 책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할 때 생활비를 보내줄 자녀가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럴 때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세대일 때는 지금과는 여건이 크게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현역일 때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과 연금세대가 가정 내 부양을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료 부담을 해 왔고, 자신의 부모를 부양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짊어져 왔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도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20-30대는 세대갈등의 요인으로 ‘젊은 세대의 고령 인구 부담’,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경제 불안’을 꼽고 있다(문화일보, 2023).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 불평등 의식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山崎(2016)의 문제제기는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18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 생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예를 들어 공적연금, 공적재해보험과 같은 경우에 연령계층에 따라서 실제 이용경험이 반영된 응답과 앞으로의 기대가 반영된 응답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특화된 조사 자료인 점과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했다는 점 등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연령계층의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대통합에 대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대환 · 이동현 · 안장혁(2019).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생활 안정 기여도: 예상과 실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30(3), 87-115.
- 2) 권창혁 · 김지현(2020). 국민연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6), 1961-1971.
- 3) 권창혁 · 이은영(2012).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2), 61-85.
- 4) 디지털타임스(2023.2.13). [기획] 고령화의 역습, 골 깊어진 세대갈등.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1402100158054001에서 2023.05 인출.
- 5) 문화일보(2023.5.2). 2명중 1명 “저출산·고령화 세대갈등 우려” [문화미래리포트 2023].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0201030321080001>에서 2023.05 인출.
- 6) 매일경제(2023.6.1). MZ 10명중 9명 “국민연금 고갈 불안”. <https://www.mk.co.kr/news/stock/10750685>에서 2023.06 인출.
- 7) 박명아 · 조시울 · 신혜리 · 박설우 · 김영선(201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7(1), 29-49.
- 8) 박종연 · 유창훈 · 박은철(2012). 우리나라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보건과 사회과학, 31, 83-106.
- 9) 양혜경 · 옥경영 · 박기완 · 주소현(2015). 공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매개하는가?. 소비자학연구, 26(2), 119-141.
- 10) 유지연(2016).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70-178.
- 11) 주소현(2018).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대한 의견과 관련 요인 탐색. 소비자학연구, 29(2), 123-150.
- 12) KBS뉴스(2022.12.17). “원하는 사람만 냅시다”...MZ 세대 ‘국민연금 불신’ 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8400>에서 2023.06 인출.
- 13) 一般社団法人 投資信託財団(2023.1.15). 日本の若年層の資産形成－日本の世代間格差と若年層の世代内投資意識格差－ <https://www.toushin.or.jp/statistics/Tsumiken/reports-r/>에서 2023.05 인출.
- 14) 太田聡一(2019). 高齢者と若年者の雇用の代替関係について, 個人金融, 67-76. https://www.yu-cho-f.jp/wp-content/uploads/2019autumn_articles07.pdf에서

- 2023.05 인출.
- 15) 金明中(2020). 高齢者と若者が共に活躍できる社会は実現可能ですか?, ニッセイ基礎研究所ジェロントロジーを学ぼう!, 1-4. https://www.nli-research.co.jp/files/topics/65676_ext_18_0.pdf?site=nli에서 2023.05 인출.
 - 16) 厚生労働省(2022). 令和4年3月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4月1日現在). <https://www.mhlw.go.jp/content/11805001/000939599.pdf>에서 2023.05 인출.
 - 17) 厚生労働省(2018). 平成30年 高齢期における社会保障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https://www.mhlw.go.jp/content/12605000/h30hou.pdf>에서 2023.05 인출.
 - 18) 総務省統計局(2015). 家計調査. <https://www.stat.go.jp/data/kakei/>에서 2023.05 인출.
 - 19) 総務省統計局(2022). 統計トピックス No.132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敬老の日」にちなんで-. <https://www.stat.go.jp/data/topics/pdf/topics132.pdf>에서 2023.05 인출.
 - 20) 博報堂WEBマガジン(2019). 「若者世代」と「シニア世代」対立でなく「共栄」を探る. <https://www.hakuhodo.co.jp/magazine/61575/>에서 2023.05 인출.
 - 21) 内閣府(2022). 令和4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2/zenbun/04pdf_index.html에서 2023.05 인출.
 - 22) 日経ビジネス(2017). 日経ビジネス独自アンケート'世代間不公平への不満続出. <https://business.nikkei.com/atcl/opinion/16/051000049/052200003/?P=5>에서 2023.05 인출.
 - 23) 丸山美幸(2023). 今後の定年法制度に関する一考察-2012年および2020年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の改正から-. 公共政策志林, 第11号, 1-18.
 - 24) 山崎俊輔(2016). 年金は若い世代に不公平か、実は団塊世代より恩恵?, NIKKEI STYLE.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MZO09684770Y6A111C1000000/>에서 2023.05 인출.
 - 25) 読売新聞(2023.5.26). 大卒就職率 3年ぶり上昇の97.3%…採用意欲高まりコロナ禍前に迫る水準. <https://www.yomiuri.co.jp/kyoiku/kyoiku/news/20230526-OYT1T50117/>에서 2023.06 인출.

- 투 고 일 : 2023년 06월 27일
- 심 사 일 : 2023년 07월 04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08월 16일